

북한의 파위 엘리트 변동: 동향과 전망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정일 총비서의 정책결정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중린 비서와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리제강, 리용철 제1부부장들 등 다수의 북한 파위 엘리트들이 2010년 상반기에 사망했다. 이로써 당 지도부의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진 시점에 북한은 오는 9월 초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했다.

당대표자회가 개최되면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은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과 비서, 당중앙군사위원 등과 같은 당의 요직에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김정은의 측근 실세들도 당의 최고지도기관에 선출되어 김정은 중심의 당 지도부 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정일은 지난 6월 초에 장성택 중앙당 행정부장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는 자신의 유고 이후 김정은에게는 당과 군대를 장악하여 실권자로 군림하게 하면서, 장성택에게는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대중·대남 관계 등 대외관계 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당중앙위원회의
파워 엘리트
 - 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 나. 비서국
 - 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3. 당중앙군사위원회의
파워 엘리트
4. 국방위원회의
파워 엘리트

1. 문제의 제기

- 2010년 상반기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당의 엘리트를 통제하는 위치에 있던 리제강 중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군대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통제를 관장하는 리용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 당중앙군사위원이 사망했음.
 - 김정일을 측근에서 보좌하던 김종린 당중앙위원회 근로단체 담당 비서도 사망했음.
 - 황장엽 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지척한 바와 같이 북한을 움직이는 핵심 실체들은 김정일의 정책결정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조직지도부의 부부장들(제1부부장들 포함)이기 때문에 이 같은 핵심 엘리트들의 사망은 올해 북한 당 지도부의 대규모 개편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은 지난 6월 23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발표하여 오는 9월 상순에 당대표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음.
 - 북한은 이미 작년부터 당대회 또는 당대표자회를 은밀히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¹⁾ 핵심 엘리트들의 연이은 사망으로 당 지도부 개편의 폭이 더 커지게 되었음.
- 북한은 2010년 6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 회의를 소집해서 장성택 중앙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직에 임명하고, 내각 총리를 교체하는 등 국가기구의 핵심 엘리트들에 대해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했음.
 - 장성택의 승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다수 전문가는 “장성택의 국방위 부위원장 승진은 그가 명실상부한 ‘2인자’라는 것을 대내외에 알린 것이다”라고 평가하거나, “북한의 권력 승계는 김정일 이후 곧바로 3대 세습으로 가기보다는 장성택에 의한 과도기적인 승계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라고 주장했음.
 - 필자는 본고에서 과연 이 같은 평가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장성택의 승진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 검토하고자 함.
- 북한의 파워 엘리트에 대한 기존의 분석을 보면, 개별 엘리트들이 북한체제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엘리트들 간의 관계를 서술하는 경우가 많았음.

- 예를 들어 김정일의 신임도가 특정 엘리트의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는 하지만, 김정일은 절대권력의 유지를 위해 특정 엘리트를 절대적으로 신임하지 않고 엘리트들 간의 상호 경쟁과 견제를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그러므로 김정일의 신임도만으로 특정 엘리트의 영향력을 평가하는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 어떤 엘리트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김정일의 신임과 그의 권한뿐만 아니라 그가 어떠한 조직과 인물들에 의해 견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
- 특정 엘리트의 권한은 상당부분 그가 속한 조직의 위상과 역할, 엘리트의 조직 내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먼저 어떠한 조직에 속해 있는가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북한의 5대 주요 권력기관, 즉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의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떠한 직책들을 겸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 본고에서는 5대 권력기관 중 특히 중요한 3대 권력기관인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들 기관에 소속된 파워 엘리트들의 변동을 고찰할 것임.
- 그리고 오는 9월 초순에 노동당 대표자회가 개최되면 어떠한 파워 엘리트 변동이 예상되는지에 대해서도 전망해 보도록 하겠음.

2. 당중앙위원회의 파워 엘리트

- 북한에서 당은 ‘혁명의 참모부’로, 당중앙위원회는 ‘혁명의 최고참모부’로 간주되고 있음.
- 당중앙위원회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기관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김정일 총비서의 업무를 일상적으로 보좌하는 비서들이 당중앙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청와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임.
 - 그리고 국가기구와 군대, 근로단체, 엘리트 등에 대해 일상적으로 통제하고, 대내외 정책, 특히 국방·경제·문화·대중·대남 정책을 결정하며 홍보하는 모든 전문부서를 포함하고 있어 한국의 중앙정부와 집권당의 중앙당 기능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음.

**북한에서 당은
‘혁명의 참모부’로,
당중앙위원회는
‘혁명의 최고참모부’로
간주되고 있음**

**1974년에 김정일이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
북한의 정치체제는
기존의 '정치국 위주의
정책적 당·국가체제'
에서 '비서국과 전문
부서 위주의 권력적
당·국가체제'로
변화되었음**

○ 당중앙위원회에서도 정치국은 상징적으로 매우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비서국은 핵심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전문부서들 중 특히 조직지도부는 당·국가기구·군대의 파워 엘리트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

- 1974년에 김정일이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 북한의 정치체제는 기존의 '정치국 위주의 정책적 당·국가체제'에서 '비서국과 전문부서 위주의 권력적 당·국가체제'로 변화되었음.²⁾

- 아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비서국과 전문부서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중앙위원회 파워 엘리트의 변동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고자 함.

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 1980년에 개최된 제6차 당대회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을 포함하여 5명을 선출하였으나, 이후 리종욱의 탈락과 김일, 김일성, 오진우의 사망으로 현재는 김정일 1인만 남게 되었음.

-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무엇보다도 김정일의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졌음.

- 그러므로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된 상태에서 오는 9월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가 개최되면 그가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음.

〈표 1〉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구성원 변화

	1980.10 ³⁾ (34명)	1994.12 ⁴⁾ (20명)	2000.12 ⁵⁾ (14명)	2005.2 ⁶⁾ (14명)	2010.8 (9명)
상무 위원 겸 위원	김일성 김 일 오진우 김정일 리종옥	김정일 오진우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위원	박성철 최 현 림춘추 서 철 오백룡 김중린 김영남 전문섭 김 환 연형묵 오극렬 계웅태 강성산 백학립	강성산 리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영남 최 광 계웅태 전병호 한성룡 서윤석	박성철 김영주 김영남 계웅태 전병호 한성룡	박성철 김영주 김영남 계웅태 전병호 한성룡	김영주 김영남 전병호
후 보 위원	허 답 윤기복 최 광 조세웅 최재우 공진태 정준기 김철만 정경희 최영립 서윤석 리근모 현무광 김강환 리선실	김철만 최태복 최영립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연형묵 리선실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홍성남 최영립 홍석형 연형묵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홍성남 최영립 홍석형 연형묵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최영립 홍석형

- 1980년 10월에는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수가 34명에 달했으나,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8월 현재 9명밖에 남지 않았음.
- 정치국 위원 또는 후보위원 직책은 특히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과의 외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당·국가기구·군대의 핵심 엘리트들에게 정치국 위원 또는 후보위원 직책을 부여하는 것은 그들의 권위를 높여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는 9월의 당대표자회에서 북한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을 대폭 충원할 것으로 예상됨.

나. 비서국

-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총비서를 포함해 총 10명에 달했던 비서국 구성원은 김일성 사망 직후에 11명으로 늘어나기도 했으나,

**오는 9월의
당대표자회에서 북한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을 대폭
충원할 것으로 예상됨**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은 1980년
10월에는 34명에
달했는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김일성
사망 직후인 1994년
12월에는 20명으로
크게 줄었음**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초에는 김정일 총비서를 포함해 6명만이 남게 되었음.

- 근로단체를 담당해 온 김중린 비서가 지난 4월 28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함으로써 현재 비서국 구성원은 5명만 남게 되었음.

〈표 2〉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의 구성원 변화

1980.10.14 ⁷⁾	1994.12 ⁹⁾	2000.12 ⁹⁾	2005.2 ¹⁰⁾	2010.8
김일성 (총비서)	김정일 (총비서 대행)	김정일 (총비서)	김정일 (총비서)	김정일 (총비서)
김정일	계응태(공안)	계응태(공안)	계응태(공안)	전병호
김중린	전병호(군수)	전병호(군수)	한성룡(경제)	(군수공업)
김영남	한성룡(경제)	한성룡(경제)	정하철(선전)	최태복
김 환	최태복(교육)	최태복(교육)	전병호(군수)	(국제·교육)
연형묵	김중린 (근로단체)	김기남(선전)	김국태(간부)	김국태(간부)
윤기복	(근로단체)	김용순(대남)	김중린 (근로단체)	김기남(선전)
홍시학	서관희(농업)	김국태(간부)	김기남 (근로단체)	(5명)
황장엽	황장엽(국제)	김중린 (근로단체)	김기남 최태복	
박수동 (10명)	김기남(선전) 김국태(사상) 김용순(대남) (11명)	(9명)	(9명)	

-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은 1980년 10월에는 34명에 달했는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김일성 사망 직후인 1994년 12월에는 20명으로 크게 줄었음.
 - 반면 비서국 구성원은 1980년에 10명이었는데 1994년에는 11명으로 오히려 한 명 더 늘었음.
 - 이는 김정일이 비서국을 중심으로 당중앙위원회를 운영해 온데 기인한 바가 큼.
 - 2000년대 후반기에 비서들이 크게 줄어든 것은 김정일이 공석이 발생한 비서직에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지 않고, 관련 전문부서의 부장 또는 부부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통치 방식에 변화를 보였기 때문임.
- 김정일이 1974년에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주로 나이든 원로들로 구성된 정치국 회의보다 측근들로 구성된 비서국 회의를 선호했던 것

처럼, ‘왕세자’ 김정은도 아직 젊은 나이임을 감안할 때 정치국보다 비서국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오는 9월의 당대표자회에서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공안과 경제, 대남 부문 담당 비서들의 충원이 이루어지는 등 비서국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 북한에서 중앙당 조직지도부는 “전당의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는 당생활지도부서이며 당중앙위원회의 참모부서”¹¹⁾로 간주되고 있음.
 - 북한의 군대와 국가기구의 파워 엘리트들 중 당원이 아닌 인물이 없으며, 김정일을 제외한 모든 엘리트들은 자신이 소속된 당조직에서 조직생활을 하게 되어 있음.
 - 그리고 소속 당조직에 의해 그들의 정치적인 동향이 지속적으로 조직지도부에 보고되고 있음.
 - 북한의 모든 파워 엘리트들의 인사 문제를 결정하는 조직지도부를 장악해야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후계자, 제2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황장엽 전 비서는 김정일이 1970년대 중반에 조직지도부장 직을 겸직하는 ‘조직비서’를 차지함으로써 권력승계가 사실상 끝났다고까지 주장하였음.
- 조직지도부는 김정일의 직속부서로서 다른 전문부서의 사업까지 간접적으로 통제·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막강하고도 핵심적인 조직임.
 - 김정일은 중앙당 비서들과 정책을 결정하는 비서국 회의에 반드시 조직지도부 부부장들을 참석시킴.
 - 조직지도부의 부부장들은 다른 비서들에게 예의를 차리기는 하지만 비서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음.¹²⁾
- 현재 중앙당 조직지도부는 본부당(本部黨), 군사 부문, 전당(全黨) 부문을 담당하는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은 제1부부장이 맡고 있음.
 - 본부당 담당 부문은 김정일을 제외한 중앙당 모든 간부들의 학습을 조직하고 당생활을 주관하고 있음.
 - 중앙당의 전체 인원은 대략 13,000명 정도 되며,¹³⁾ 이들이 본부당의 관리대상임.

**북한에서 중앙당
조직지도부는
“전당의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는
당생활지도부서이며
당중앙위원회의
참모부서”로
간주되고 있음**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제1부부장 3명 중 금년
상반기에 리제강과
리용철이 사망했으므로
조직지도부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조직지도부 군사부문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이 관장하는 부대 내 당조직선을 장악하고 있음.
 - 군부 고위간부의 선발과 검토 등 인사는 모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간부과의 소관이므로, 군 총정치국은 조직지도부의 지도 밑에 군 인사 등 핵심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 조직지도부의 전당 부문은 본부당과 군사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당조직, 즉 지방당이나 국가기구 내 당조직, 사회조직 내 당조직 등을 지도통제하고 있음.¹⁴⁾
 - 그동안 조직지도부의 본부당 부문은 리제강 제1부부장이, 군사 부문은 리용철 제1부부장이 담당해 왔으며, 2008년 제1부부장에 임명된 김경옥이 전당 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제1부부장 3명 중 금년 상반기에 리제강과 리용철이 사망했으므로 조직지도부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80대의 리제강과 리용철의 사망으로 조직지도부 내에서도 세대교체가 본격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김정은의 상대적으로 젊은 측근들이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리제강의 사망과 관련하여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6월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리제강 동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2일 0시 45분 80살을 일기로 서거했다”고 보도했음.
- 조선중앙방송은 또한 “리제강 동지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해 온갖 정열을 다 바쳤다”고 평가함으로써 그가 당조직을 관장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냈음.¹⁵⁾
- 리제강은 고령으로 김정일 수행횟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2007년에는 단 한 차례 수행했고,¹⁶⁾ 2008년 8월 김정일의 건강 이상 이전에도 단 한 차례만 수행했음.¹⁷⁾
- 그러나 2008년 하반기 김정일 총비서가 건강 이상으로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가 재등장한 이후 급격히 수행횟수가 늘어났음.
 - 리제강이 2008년 8월 이후 연말까지 8회,¹⁸⁾ 2009년에는 17회를 기록한데 이어 2010년에 21회 현지지도를 수행한 것¹⁹⁾은 그가 김정은 후계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음.

- 리제강은 2008년부터 김정은의 후계자 지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2009년 1월 후계자 결정 이후 장성택 중앙당 행정부장과 함께 김정은의 인사 결정을 보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리제강은 리용철 제1부부장과 함께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씨의 최측근으로서 2004년 장성택 당시 조직지도부 행정 부문(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 담당 제1부부장을 ‘중파(파벌)행위’로 직무 정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러므로 리제강은 장성택 중앙당 행정부장과는 불편한 관계였을 수 있음.
 - 리제강 제1부부장이 사망함으로써 당분간은 장성택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되었음.
- 리용철 조직지도부 군사 담당 제1부부장 겸 당중앙군사위원은 지난 4월 26일 사망했음.
 -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동으로 발표한 ‘리용철 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용철 동지는 심장마비로 2010년 4월 26일 0시 20분에 여든한 살을 일기로 서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음.
 - 조선중앙방송은 또한 “리용철 동지는 오랜 기간 당 중앙위원회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사업하면서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쳤다”고 보도함으로써 그가 조직지도부에서 군의 조직 및 인사를 관장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냈음.²⁰⁾
- 리용철 제1부부장은 1980년대 초반 인민무력부 작전국장을 거쳐 1986년 조사부장으로 노동당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1994년부터 당중앙위원회에서 군사 조직을 담당하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맡아왔음.
 - 리용철 제1부부장은 1996년 김정일이 판문점대표부를 시찰할 때 수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군부대를 비롯한 기업소와 건설현장 등 김 총비서의 현지도도 때 활발히 수행해왔으나, 노환이 겹치면서 대외활동이 점차적으로 눈에 띄게 줄었음.
 - 리용철은 김정일의 공개 활동에 2006년에는 15회²¹⁾ 수행하였고, 2007년에는 11회²²⁾ 수행하였으며, 2008년에는 4회²³⁾ 수행하는 등 수행횟수가 계속 줄어왔음.
 - 김정은의 군 장악과 관련하여 리용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보다는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2009년부터 더 중요한 역할을 수

**리용철 제1부부장은
1996년부터 군부대를
비롯한 기업소와
건설현장 등 김 총비서의
현지도도 때 활발히
수행해왔으나,
노환이 겹치면서
대외활동이 점차적으로
눈에 띄게 줄었음**

**김정철은 가까운
미래에 리제강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조직지도부의 본부당
담당 제1부부장 또는
부부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음**

행해 왔으므로, 리용철의 사망이 김정은의 군부 장악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 2010년 8월 현재 조직지도부에는 김경옥 제1부부장 외에 김인걸, 황병서 부부장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²⁴⁾
 - 김인걸 부부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음.
 - 황병서 부부장은 1949년생으로 2006년 상반기에는 김정일의 공개활동(총 71회)을 48차례나 수행함으로써 뒤 이은 리명수, 현철해 대장(각 30회), 박재경 대장(29회), 리용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각 18회) 등을 큰 차이로 따돌렸음.²⁵⁾
 - 이후 황병서 부부장의 김정일의 공개활동 수행횟수는 크게 줄었지만,²⁶⁾ 김정일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인물로 차기 조직지도부의 군사담당 제1부부장 직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임.
 - 후계자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도 조직지도부에서 당생활지도과의 담당과장으로 부부장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김정철은 지난 6월 초까지 리제강 제1부부장 밑에서 주로 본부당을 관장해왔는데, 김정일의 아들로서 김정일에게 직보(直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리제강보다 더 큰 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분석도 있음.
 - 김정일의 현지도와 관련하여 김정은은 주로 군부대 시찰을, 김정철은 당과 민간기관 시찰을 사전에 준비·조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²⁷⁾
 - 김정철은 가까운 미래에 리제강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조직지도부의 본부당 담당 제1부부장 또는 부부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음.

3. 당중앙군사위원회의 파워 엘리트

- 북한은 지난 5월 13일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만 80세의 김일철 국방위원 겸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을 ‘연령상’의 관계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였음.²⁸⁾
 - 김일철은 당중앙군사위원 직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판단됨.
 - 북한 고위급 실세의 경우 보통 고령 때문에 해임되지 않고, 설사 해임되더라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일은 극히 드물.
 - 연령상의 이유만으로 김일철을 해임해야 했다면, 만 82세의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만 84세의 전병호 국방위원도 같이 해임

했어야 함.

- 김일철의 해임 배경과 관련하여 성격이 외향적이고 달변이어서 말 실수도 잦았던 김일철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강등’된 데 대한 불평불만을 표출하다 해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음.²⁹⁾
- 그러나 김정일의 인사결정에 대해 불평불만을 표출한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매우 중대한 ‘항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북한 당국이 김일철을 해임한 것은 비리나 문책 등의 이유보다는 원로그룹에서 위상이 다소 떨어지는 김일철을 공식 발표를 통해 명예롭게 퇴임시키고, 그 자리에 인민무력부 내에서 김정은과 가까운 60~70대 젊은 핵심 측근을 기용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

〈표 3〉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의 변화(1980~2010)

1980.10.14 ³⁰⁾	1994.12 ³¹⁾	2000.12 ³²⁾	2005.2 ³³⁾	2010.8
김일성(위원장) 오진우 김정일 최 현 오백룡 전문섭 오극렬 백학림 김철만 김강환 태병렬 리을설 주도일 리두의 조명록 김일철 최상욱 리봉원 오룡방 (19명)	김정일 오진우 최 광 백학림 리을설 리두의 김두남 리하일 김익현 김일철 김하규 (14명)	김정일 리을설 조명록 김영춘 백학림 김익현 김일철 리하일 박기서 김명국 리두의 리용철 리용무 (13명)	김정일(위원장) 리을설 조명록 김영춘 리용철 김두남 리하일 박기서 김명국 백학림 김익현 김일철 (12명)	김정일(위원장) 리을설 조명록 김영춘 리하일 김명국 (6명)

- 당중앙군사위원회는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19명의 구성원으로 출발하여 그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2010년 상반기에는 리용철 당중앙군사위원 겸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사망한 데 이어, 김일철 위원이 해임됨으로써 현재 8월 현재 6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음.
- 군대에 대한 지휘에 있어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보다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³⁴⁾ 제3차 당대표자회가 개최되면 후계자 김정은을 비롯하여 리용철 조직지도부 군사담당 제1부부장의 후임 인물 등이 대거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군대에 대한 지휘에
있어서는 당중앙군사
위원회가 국방위원회보다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를 지도하는
장성택 중앙당
행정부장은 2009년
4월 국방위원회 위원에
선출된 지 1년 2개월
만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직에
선출되었음**

4. 국방위원회의 파워 엘리트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2010년 5월 13일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만 80세의 김일철 국방위원을 ‘연령상’의 관례로 모든 직무에서 해임했음.
 - 그 결과 2009년 4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를 통해 13명으로까지 늘어났던 국방위원회 구성원은 12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음.
 - 국방위원회 구성원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직후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수가 늘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왔음.

〈표 4〉 국방위원회 구성원 변화

1994.12 ³⁵⁾	2000.12 ³⁶⁾	2005.2 ³⁷⁾	2010.8
김정일(위원장) 오진우 (제1부위원장) 최광(부위원장) 전병호(위원) 김철만(위원) 이을설(위원) 김봉률(위원) 김광진(위원) 이하일(위원) (9명)	김정일(위원장) 조명록 (제1부위원장) 김일철(부위원장) 리용무(부위원장) 김영춘(위원) 연형묵(위원) 리을설(위원) 백학림(위원) 전병호(위원) 김철만(위원) (10명)	김정일(위원장) 조명록 (제1부위원장) 연형묵(부위원장) 리용무(부위원장) 김영춘(위원) 김일철(위원) 전병호(위원) 최룡수(위원) 백세봉(위원) (7명)	김정일(위원장) 조명록 (제1부위원장) 김영춘(부위원장) 리용무(부위원장) 오극렬(부위원장) 장성택(부위원장) 전병호(위원) 백세봉(위원) 주상성(위원) 우동측(위원) 주규창(위원) 김정각(위원) (12명)

- 지난 6월 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 회의에서는 김정일의 매제로서 북한의 핵심적인 공안기관들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를 지도하는 장성택 중앙당 행정부장이 2009년 4월 국방위원회 위원에 선출된 지 1년 2개월 만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직에 선출되었음.
 -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장성택의 국방위 부위원장 승진은 그가 명실상부한 ‘2인자’라는 것을 대내외에 알린 것”이라고

평가하거나 “북한의 권력승계는 김정일 이후 곧바로 3대 세습으로 가기보다는 장성택에 의한 과도기적인 승계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 그리고 “장성택을 국방위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방위를 앞으로 후계체제를 뒷받침하고 전체적 후계 이양과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삼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음.³⁸⁾

○ 그런데 이 같은 해석은 김정일이 ‘수령의 후계자’로서 당과 군대에서 김정일 다음 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임.

- 金正은과 장성택의 실제 영향력과 자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두 인물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권력승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정통성’, 북한권력의 ‘핵(核)’인 중앙당 조직지도부에 대한 지도권, ‘공안기관에 대한 지도권’, ‘군대에 대한 지도권’ 등 핵심 지표들을 가지고 분석해야 할 것임.

○ 먼저, ‘권력승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정통성’을 보면金正은은 2009년 1월에 ‘수령의 후계자’로 결정되어 후계자로서의 공식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장성택은 ‘과도기적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공식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음.

- 북한의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과 같은 ‘절대적 지위’를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
- 바로 이 같은 통치논리에 의해金正은은 김정일의 후계자로 결정되면서 곧바로 당과 군대의 ‘제2인자’가 되었으며, 작년 상반기에 북한의 핵심 엘리트들로 구성된 후계자의 정치적 지도체계를 구축했음.

○ 둘째,金正은은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에 공식적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과거 김정일이 조직비서와 조직지도부장 직을 가지고 북한의 당·군대·국가기구의 파워 엘리트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했던 것처럼 현재 조직비서와 조직지도부장 역할을 사실상 대행하면서 북한의 엘리트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

- 리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최근에 사망하기 전까지金正은이 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인사 결정에 관여해 온 사실은 그가 후계자로서 조직지도부의 제1부부장보다 높은 지위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반면 장성택은金正은의 인사결정에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직접 인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金正은과 장성택의 실제 영향력과 자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권력승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정통성’, 북한권력의 ‘핵(核)’인 중앙당 조직지도부에 대한 지도권, ‘공안기관에 대한 지도권’, ‘군대에 대한 지도권’ 등 핵심 지표들을 가지고 분석해야 할 것임

〈표 5〉 김정은과 장성택의 영향력 및 자질 비교

	김정은	장성택
권력승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정통성	○ (후계자 지위)	×
중앙당 조직지도부에 대한 지도권 (파워 엘리트에 대한 인사권)	○ (사실상 조직비서 대행)	×
공안기관(보위부 등)에 대한 지도권(파워 엘리트에 대한 감시·통제권)	○ (국가안전보위부장)	○ (중앙당 행정부장)
중앙당 선전선동부를 통한 개인승배	○	×
중앙당 재정권	○	×
군대에 대한 지도권	○ (2009년부터 영군체계 수립)	×
당과 군대 내 지지세력	○ (김정일의 후원 하에 핵심 엘리트들로 구성된 지지세력 형성)	제한적 (2004년에 직무정지 당하면서 대부분 정치무대에서 퇴장)
대내외 정책에 대한 영향력	○ (2009년부터 관여)	제한적
국정 경험	일천(日淺)	풍부
리더십(보스 기질)	○	○
외교 경험	×	풍부 (수차례 방중)
영어 구사 능력	○(스위스에서 약 4년 반 유학)	?
대남 접촉 경험	×	○(2002년 방한)

- 셋째,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 공안기관에 대한 지도권은 김정은과 장성택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음.
 - 김정은은 2009년에 국가안전보위부장 직에 임명되어 보위부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지위에 있고, 장성택은 중앙당 행정부장으로 보위부와 인민보안부를 당적으로 지도하면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지시와 결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위치에 있음.
 -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국가안전보위부장 직을 맡긴 것은 김정은이 파워 엘리트들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야 권력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넷째, 중앙당 선전선동부를 통해 김정은에 대한 개인숭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김정은에 의한 권력승계를 유리하게 하는 부분임.
 - 과거 김정일의 부인 고영희에 대한 개인숭배 캠페인이 군대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고영희가 김정일 다음 가는 권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음.³⁹⁾
 - 이처럼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와 권력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함.
 - 그런데 장성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개인숭배 움직임도 없어 장성택의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다섯째, ‘제2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군대를 장악해야 하는데 장성택은 군대를 지도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음.
 - 반면 2009년에 마이니치신문이 입수해 공개한 북한군 내부 문건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의 위대성 교양 자료」⁴⁰⁾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김정은의 ‘영군체계’ 수립은 이미 시작되었음.
 - 그리고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조명록 군 총치국장을 대신해서 김정은의 군 장악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⁴¹⁾

- 이외에도 김정은은 2009년 하반기부터 김정일서기실에 구성된 개혁개방 전략 수립팀을 기반으로 당의 정책수립에 관여하기 시작했지만,⁴²⁾ 장성택은 당의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매우 제한적인 영향력만을 가지고 있을 뿐임.
 - 김정은은 2010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과거의 정책과는 구별되는 인민생활 중시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에 이를 정도로⁴³⁾ 현재 그는 북한의 정책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김정은은 2009년
하반기부터
김정일서기실에
구성된 개혁개방 전략
수립팀을 기반으로
당의 정책수립에
관여하기 시작했지만,
장성택은 당의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매우 제한적인
영향력만을 가지고
있을 뿐임**

김정일이 지난 6월**초에 장성택을****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임명한 것은 자신의****사망 이후 김정은에게는****당과 군대를****장악함으로써 실권자로****군림하게 하면서도,****장성택에게는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핵문제****협상과 대중·대남****관계 등 대외관계****관리를 맡기는****방안을 선택**

- 이처럼 이데올로기적 정통성, 당·군대의 장악, 정책에 대한 영향력 등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면, 김정은이 장성택보다 김정일 사후 권력을 승계하기에 훨씬 유리한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나이와 국정 관리 경험, 외교나 대남 접촉 경험 등의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면 김정은보다는 장성택이 우위에 있음.
 - 이런 사실에 근거해 본다면 김정은은 자신이 국정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대외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국정 관리와 대외관계에서 장성택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장성택도 당과 군대에 대한 지도권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일 이후 성급하게 ‘제1인자’가 되거나 ‘섭정왕’이 되려 하기보다는 김정은의 당과 군대에 대한 장악을 인정하면서 특히 대외부문을 중심으로 북한을 공동통치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김정일로서는 비록 일시적이라도 장성택에게 전권을 맡길 경우 김정은이 영원히 권력을 승계하지 못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당 행정부를 제외하고는 당과 군대에 대한 장성택의 지도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결국 김정일이 지난 6월 초에 장성택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자신의 사망 이후 김정은에게는 당과 군대를 장악함으로써 실권자로 군림하게 하면서도, 장성택에게는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핵문제 협상과 대중·대남 관계 등 대외관계 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임.
 - 김정은과 장성택의 이 같은 형식적 ‘투톱체제’는 김정은의 국정 장악력이 높아지면 김정은이 국가기구까지 직접 지도하는 ‘원톱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임.
- 북한 국방위원회를 ‘최고권력기구’로 보거나 장성택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을 가지고 “국방위를 앞으로 후계체제를 뒷받침하고 전체적 후계 이양과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함.
 - 북한 국방위원회는 국가기구 중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지만, 2009년 개정헌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당·국가체제에서 조선로동당의 영도 하에 모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그리고 국방위원회의 권한으로는 북한에서 가장 힘 있는 두 권력기

관인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파워 엘리트 인사에 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나 내각 총리의 인사에도 참여할 수 없음.

- 국방위원회가 최고지도자의 정상외교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역할을 맡을 수 있지만, 중앙당 조직지도부처럼 파워 엘리트 전반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당 군사부처럼 군대에 대한 일상적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님.
- 지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 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제의’에 의해 총리가 결정된 것은 여전히 당중앙위원회가 파워 엘리트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그러므로 김정일 사후 장성택이 국가기구의 최고직책에 선출된다 하더라도 당권과 군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김정일의 동의 하에 국가기구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을 것임.⁴⁴⁾

미주

- 1) 『열린북한통신』, 2009/06/08 참조.
- 2)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서울: 선인, 2007), 281쪽 참조
- 3) 『로동신문』, 1980/10/15, 1면.
- 4) 『북한권력기구도 1994.12』(통일원, 1994).
- 5) 『북한권력기구도 2000.12』(통일부, 2000).
- 6) 『북한권력기구도 2005.2』(통일부, 2005).
- 7) 『로동신문』, 1980/10/15, 1면.
- 8) 『북한권력기구도 1994.12』(통일원, 1994).
- 9) 『북한권력기구도 2000.12』(통일부, 2000).
- 10) 『북한권력기구도 2005.2』(통일부, 2005).
- 11)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74년 2월 28일),” 『김정일 선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94쪽.
- 12) 현성일, “북한노동당의 조직구조와 사회통제체계에 관한 연구”(한국외대 정책과 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33쪽;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한울, 1999), 190쪽.
- 13) 박형중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서울: 통일연구원, 2004), 159쪽.
- 14)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265-266쪽;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서울: 선인, 2007), 284쪽 참조.
- 15) 『연합뉴스』, 2010/06/02.
- 16) “2007년 김정일 공개활동 수행현황,” 통일부 작성 자료(2007.12.26).
- 17) 『동아일보』, 2008/11/18.
- 18) 『연합뉴스』, 2009/01/06.

- 19) 『통일뉴스』, 2010/06/03.
- 20) 『연합뉴스』, 2010/04/26.
- 21) 『연합뉴스』, 2006/12/27.
- 22) 리용철은 2007년에 북한의 파워 엘리트 중 김정일의 수행횟수에서 6위를 차지했음. 『중앙SUNDAY』, 제42호(2007/12/30).
- 23) 『연합뉴스』, 2009/01/06.
- 24)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 2010』(통일부, 2010), 15쪽.
- 25) 『연합뉴스』, 2006/12/15.
- 26) 2007년에는 김정일의 공개활동에 조직지도부의 리용철 제1부부장이 11회, 황병서 부부장이 6회 수행하였음. 『중앙SUNDAY』, 2007/12/30.
- 27) 『열린북한통신』, 2009/06/08, 2009/08/17 참조.
- 28) 『조선중앙통신』, 2010/05/13.
- 29) 『연합뉴스』, 2010/05/14.
- 30) 『로동신문』, 1980/10/15, 1면.
- 31) 『북한권력기구조 1994.12』(통일원, 1994).
- 32) 『북한권력기구조 2000.12』(통일부, 2000).
- 33) 『북한권력기구조 2005.2』(통일부, 2005).
- 34) 정성장, “북한 군사·국방지도체계에서 노동당과 국방위원회의 역할.” 『합참』 제42호(2010.1), 18-22쪽;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역할·엘리트.” 『세종정책연구』 제6권 1호(2010), 223-280쪽 참조.
- 35) 『북한권력기구조 1994.12』(통일원, 1994).
- 36) 『북한권력기구조 2000.12』(통일부, 2000).
- 37) 『북한권력기구조 2005.2』(통일부, 2005).
- 38) 『연합뉴스』, 2010/06/07.
- 39) 『[강연자료] 존경하는 어머니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충신 중의 충신이다』(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초급선동일군들을 위한 강습 제강]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동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평양: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2002) 참조.
- 40) <http://mainichi.jp/select/world/news/20091004mog00m030018000c.html> (검색일: 2009/10/08).
- 41) 정성장, “북한 김정은의 군부 장악 실태와 전망.” 『합참』 제44호(2010.6), 19-25쪽 참조.
- 42)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6월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 동향과 관련해 “김정은은 김 위원장의 현장 방문시 수시로 동행하며 정책 관여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0/06/24.
- 43) 정성장, “북한의 신년공동사설과 대내외 정책의 전환 전망.” 『세종논평』, No.170 (2010.1.5) 참조.
- 44)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 회의에서의 장성택 승진 조치의 의미 및 김정은과 장성택의 영향력 비교에 대한 언급은 좋고, “‘공동통치’ 발맞추는 김정은과 장성택.” 『시사저널』, 2010/06/22, 35-37쪽을 수정·보완하였음.

편집: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국문에디터: 강길효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